

## 2017. 05. 11. (목)

|        |    |     |                                |   |
|--------|----|-----|--------------------------------|---|
| 전북일보   | 사람 | 012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임진왜란 자료 국역사업에 선정 | 1 |
| 전북도민일보 | 문화 | 012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선정                | 2 |
| 전라일보   | 문화 | 012 | 임란자료 '쇄미록' 번역사업참여              | 3 |
| 새전북신문  | 사회 | 007 | 전주대, 임진왜란 피난일기 '쇄미록' 번역        | 4 |
| 전북매일신문 | 문화 | 012 |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임진왜란 번역 착수          | 5 |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임진왜란 자료 국역사업에 선정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공개 입찰한 임진왜란 자료 ‘쇄미록’ 국역사업에 선정됐다.

쇄미록은 오희문(1539~1613)이 임진왜란 때 9년 3개월에 걸쳐 쓴 피란일기로 보물 제1096호다. 임진왜란 당시 전쟁의 실상과 함께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사회 제도와 풍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높은 기록물이다.

지난 1990년 쇄미록 국역본이 간행됐지만, 가독성 문제와 함께 관련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재번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업을 맡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알기 쉬운 현대어로 쇄미록을 재번역해 새로운 국역본을 만들



계획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입찰한 이번 국역사업은 올 12월까지 진행되고, 사업비는 9900만 원이다. 진주박물관은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관련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종표 기자

진주박물관 공개입찰 임진왜란 쇄미록 번역사업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공개 입찰한 임진왜란 자료 국역사업 '쇄미록' 번역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립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피난 일기인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쇄미록을 도서 발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올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9,900만원.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당시의 대표적인 기록물이다.

모두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구성된 쇄미록은 오희문이 한양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터 되돌아온 1601년 2월 27일까지 총 9년 3개월 동안의 일기 형식으로 이뤄졌다.

임진왜란 당시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음식과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 사회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 또한 매우 높은 사료다.

지난 1990년 문중에서 처음 국역본이



임진왜란 자료 '쇄미록'

간행되기도 한 쇄미록은, 가독성의 문제와 기존 연구 성과 축적으로 재번역이 필요한 실정에 처했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알기 쉬운 현대어로 재번역함으로써, 전문 연구자를 포함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역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돼 다년간의 번역 사업을 통해서 국역 여지도서, 국역 추안급국안, 국역 존재집, 국역 문곡집, 국역 병산집 등 다양한 분야의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

김영호 기자

# 임란자료 '쇄미록' 번역 사업 참여

## 국립진주박물관 진행 사업 전주대 한국고전학연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자료 국역사업인 <쇄미록> 번역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이 <쇄미록>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 제공코자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9,900만원.

보물 제1096호로 지정돼 있는 <쇄미록>은 임진왜란 당시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피난일기로 오희문이 한양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터 다시 돌아온 1601년 2월 27일까지 총 9년 3개월간의 일기를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담았다.

전쟁 실상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사회 제도와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높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임진왜란 대표 기록물 '쇄미록' 모습

더불어 임진왜란 대표 기록물로 꼽힌다.

본 사업을 맡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전문연구원이 번역하고, 일기자료 전문연구자 7명을 공동연구원으로 초빙해 상호 협조한다.

/이수화기자 · waterflower20@

/편집=백지숙기자 · bjs02@

## 전주대, 임진왜란 피난일기 '쇄미록' 번역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오는 12일까지 임진왜란 당시의 피난일기인 오희문(1539~1613)의 '쇄미록' 번역 작업에 나선다.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공개 입찰한 국역사업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9,900만원이 지원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

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함께 임진왜란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일곱권 분량의 필사본으로 오희문이 한양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1601년 2월 27일까지 9년 3개월의 여정이 담겼다.

1990년 처음 문중에서 국역본이 간행됐지만 가독성의 문제와 기존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재

번역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알기 쉬운 현대어로 재번역 함으로써 전문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역본이 완성될 계획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번역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향후 도서발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김혜지 기자

#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임진왜란 번역 착수

임란 국역사업 고전학연구소 선정  
보물제1096호 지정 '쇄미록' 번역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임진왜란 번역 사업에 착수한다. 전주대(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공개 입찰한 임진왜란자료 국역사업 《쇄미록》 번역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이 임진왜란 당시의 피난일기인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쇄미록》을 도서발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 총 사업비는 9,900만원이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 이순신《난중일기(亂中日記)》, 유성룡《징비록(懲虜錄)》과 더불어 임진왜란 당시 대표적 기록물이다. 쇄미록은 총 7책 분량 필사본으로, 오희문이 한양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터 다시 돌아온 1601년 2월 27일까지 총 9년 3개월간 일기이다. 임진왜란 당시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 관심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쇄미록》은 1990년에 처음 문중에서 국역본이 간행되었다. 하지만 가독성 문제와 기존 연구 성과 축적으로 재번역이 필

요한 실정이다. 사업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알기 쉬운 현대어로 재번역 하여, 전문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역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을 맡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 번역 사업을 통해 《국역 여지도서》, 《국역 추안급국인》, 《국역 존재집》, 《국역 문곡집》, 《국역 병산집》 등 다양한 분야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 그간 축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연구원이 번역을 담당하고, 국내 저명한 일기자료 전문연구자 7명을 공동연구원으로 초빙하여 학술연구와 운문 등 상호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진주박물관에서는 결과물 인지도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려운 기자(nekimsi@)전주대 고전학연구